

	<h1>보도자료</h1>	2021. 12. 2 (목)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클럽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클럽 진상규명특별위원회 모두발언

- ☐ 일시: 2021년 12월 2일(목) 오전 8시 30분
- ☐ 장소: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욱 위원장

검찰은 화천대유 임직원과 직원들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에 대해 조사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어제밤 검찰이 광상도 의원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광상도 의원은 아들의 50억원을 성과급으로 표현하면서 “화천대유가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이상한 일들이 생겼다” 말하면서 아들이 받은 거액의 돈을 정당화했습니다.

광상도의 말대로라면 당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고 하는 화천대유의 모든 임직원들이 받은 수당과 성과급, 법률자문료에 대해 공개하고 광상도 아들이 받은 50억이 정당한 성과급인지를 확인받아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지금 즉시 화천대유 임직원들이 받은 수당과 성과급, 자문료 등에 대해 공개해야 합니다.

김건희씨와 윤석열 후보 측의 거짓말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양평 개발 관련 건입니다. 김건희씨와 윤 후보측은 국민 앞에서 책임있는 자세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아내인 김건희씨가 양평군 땅 작업을 위해 2009년에 투자금 8억원을 유치하고 사업승인 이전에 개발지 토지를 사들인 의혹 관련하여 윤 후보측의 거짓말이 또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일대에는 2006년부터 LH가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추진했다가 공영개발을 포기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LH 공영개발이 포기된 후 한 달 뒤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모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 회사인 ESI&D는 LH개발 지역에서 1.5km 떨어진 인근 지역에서 임야와 농지를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이어 2011년 9월 ESI&D는 350가구 규모의 민간개발사업을 양평군에 제안했고, 양평군은 2012년 11월 전격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승인하여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최모씨의 회사는 이 사업을 통해 100억원 이상의 이윤을 얻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당시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자였던 양평군수는 윤석열 후보 경선 선거캠프에 참여했던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경기 여주·양평)입니다.

그런데 지난 1일, 한겨레신문에서 이와 관련되어 중요한 사실을 보도하였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처 김건희씨가 LH가 공공개발을 추진하던 2009년 시절부터 이 지역의 땅 작업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투자를 유치하러 다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김건희씨는 2009년 5월 모 기업 대표이사의 아들 배씨를 만나 공흥동 인근 땅 작업을 위한 투자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금으로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모씨는 공흥지구 인근 토지와 임야를 사들이고 땅 작업을 시작합니다.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윤 후보 측은 <한겨레>에 “김씨는 (공흥지구) 투자금을 유치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는데, 판결문이 공개됨으로서 해명 자체가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증거로서 우리 특위가 입수한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2018나2017141 이

익배당금 사건 관련 판결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의 딸인 김건희가 2009년 5월경 원고 청산인 F의 아들인 배모씨에게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2009.7.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최모씨)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800,000,000원(8억원)을 투자하되, 피고 (최모씨)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 약정’)을 체결하였다”

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는 배씨가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씨의 회사에 800만원을 입금하였고 최모씨는 위 돈을 회사 ESI&D의 계좌로 다시 입금한 후 2011. 12월 7일 이 돈으로 경기도 양평군 H 임야 2,585㎡(782평)를 매수했다는 사실도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땅 작업을 위해 김건희씨가 배씨에게 ‘투자’를 받았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측은 한겨레에 다시 한번 거짓 해명을 합니다. “해당 거래는 투자금 조달이 아니라 대여였다. ㄱ기업이 8억원을 회수한 뒤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수익 배분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이 에스아이엔디는 엘에이치가 어떤 부지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도 몰랐다” 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거짓이라는 사실이 판결문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자세하게 보면 확실하게 김건희씨는 배씨에게 투자약정을 체결한 것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약정을 분명히 하기 위해 판결문에서 ‘이 사건 투자 약정’으로 표현을 하고 이를 강조한 것입니다. 윤석열 측은 투자약정을 대여라고 변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왜곡이며 허위 사실 유포입니다.

중요한 점은 김건희씨와 윤석열 후보 측의 이러한 말바꾸기 반복을 통해 계속해서 거짓말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건희씨는 이미 대학 5곳에 허위 이력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

재까지 드러난 것만 모두 9건입니다.

미술강사를 미술교사로 시간강사를 부교수로 기재했으며, 근무한 경력이 없는 학교에서 근무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 학력 또한 거짓입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측은 처음에는 ‘단순 오기’라며 거짓 변명으로 동조했다고 이제는 아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양평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양평 관련 투자를 유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가 판결문이라는 증거가 나오자 이제 ‘대여’라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대여 역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거짓말이 계속해서 다른 거짓말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양치기 소년이 늑대에게 잡아먹히듯이 김건희씨와 윤석열씨의 거짓말은 결국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심판받을 것입니다.

윤석열의 처 김건희씨와 장모 최모씨가 관여된 양평 개발 관련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시행사가 개발사업기간을 넘겼는데도, 양평군이 제재 없이 사업 만료일을 2016년 7월 준공 직전으로 변경해준 특혜 시비 의혹, 강득구 의원이 제기한 개발부담금 감면 특혜 의혹, 어제 이재명 캠프 현안대응 TF에서 제기한 최씨의 농지법 위반 의혹까지 수사해야 할 사항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사는 미진합니다. 11월 17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시민단체 고발장을 접수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거대한 의혹 덩어리에 유력 대선 후보의 친인척까지 연루된 중량급 사건을 수사인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 일개 지방경찰서에서 감당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수사기관 이첩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는 내일 오후 2시 양평군청에 방문하여 관련 의혹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추가 의혹이 발견된다면 추가 법적 대응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언론인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병철 부위원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그 처가 식구들의 비리 의혹을 보면 조선말기 왕조시대 외척세력의 발호가 생각납니다. 장모 최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범행에 이어서 양평 개발 비리 의혹,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등 외척의 극심한 부패로 국가의 운이 쇠락해졌던 비극적인 왕조시대 역사가 생각이 나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반칙과 특권없는 사람 사는 세상” 을 원합니다. 아무리 검찰총장, 대통령 후보의 처가라고 해도 특권과 특혜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왕” 이 되겠다고 버젓이 손바닥에 쓴 대통령 후보, 직업을 농업이라고 기재하는 외척들이 특권을 이용해서 부정을 저지르는 역사의 반복을 막아야 합니다.

윤 후보 처가의 회사가 온갖 편법과 특혜로 양평군으로부터 공흥지구 개발 사업권을 취득한 의혹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려 205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윤 후보는 바로 그 양평군청을 관할하는 여주검찰청 지청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사업 인허가 당시 양평군수이자 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선 경선패자 캠프에 참여했었습니다. “왕” 이 되겠다고 온 국민 앞에 손바닥에 써서 나서는 후보와 그 처가 식구들, 그리고 이를 도운 사람들이 대선 캠프에 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단돈 10만 원에도 가슴 졸이고 있는데, “왕” 자를 쓴 후보의 처가 식구들은 수백억의 이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국민들 눈에서 피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나라의 운명을 책임질 대통령 후보라면 또 다시 반칙과 특권으로 힘 없는 서민들을 절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왕조시대 조선 말기와 같은 망국적인 외척의 발호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경찰·감독기관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진상을 규명하고 불법 이익을 취득한 범인을 처벌해야 합니다. 우리 ‘윤석열 은폐 수사 및 50억클럽 진상규명 특위’는 잘못된 역사의 반복을 온몸으로 막겠다는 처절한 각오로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정말로 국민을 위한다면 편법과 특혜 의혹에 대해 먼저 국민께 사죄하십시오. 불법의혹으로 취득한 이익도 과감히 포기하는 용기를 보여주십시오. 국민들은 그런 정직한 결단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서민들을 생각하십시오. 국민을 현혹시키는 말이 아닌 모든 불법적인 이익을 포기하는 진실한 행동을 보여 주십시오.

2021. 12. 02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클럽 진상규명특별위원회